

제 목 제 15 회 김중영미술상 수상기념전: 박일순 보도자료  
담당 박춘호 학예실장 ho8055@daum.net 02-3217-6484 010-8796-8055  
자료 웹하드 ID: **kcymuseum** PW: **6484**

GUEST > 내리기전용 > 보도자료 > 제15회 김중영미술상 수상기념전: 박일순 (폴더)

- 전 시 명 제 15 회 김중영미술상 수상기념전: 박일순 展
- 기 간 2020.12.11 금-2021.02.21 일
- 장 소 김중영미술관 신관 1,2,3 전시실 (서울 종로구 평창 32 길 30)



#### ■ 전시개요

한국추상조각의 선구자이며 일생을 한국조각예술교육에 헌신한 우성 김중영(1915-1982)선생의 유지를 기리고자 1990년 2월 13일, 후학과 유족이 뜻을 모아 우성김중영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김중영조각상을 제정하여, 1990년 12월 8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김중영조각상을 시상한 이래 격년으로 진행하여 금년 제16회에 이르렀다.

제13회까지는 45세 이하의 젊은 조각가를 대상으로 조각상을 시행하였으나, 지난 14회부터는 우성김중영기념사업회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최로 미술상으로 새롭게 확대 시행하였다. 그 이유는 김중영선생이 조각가임에도 그보다 더 많은 드로잉과 회화 작품, 뿐만 아니라 서예 작품을 남긴 작가였기 때문이다.

김중영미술상은 상금이 2,000만원이며, 수상자는 그 다음 시상식 때 김중영미술관 신관 사미루에서 수상기념전을 개최한다. 이번 박일순 전시는 2018년 제15회 수상기념 전시이다. 올 해는 코로나 19사태로 미술상시상식은 2021년 하반기로 연기했고, 수상기념전만 개최한다. 2023년부터는 원래대로 격년으로 시상식과 수상기념전을 동시에 개최할 것이다.

## ■ 전시내용 및 구성

박일순은 오랜 시간 나무로 작업하고 있다. 전시된 나무는 벌목 후 남은 그루터기, 면봉, 연필, 합판, 혹은 실패와 같이 다양한 형태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초록의 싱그러움이 넘쳐난다. 그 옛날 국어책에서 <실록 예찬>을 읽던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처럼 싱그러운 작품을 선보이는 그의 작업노트이다.

***“조각을 한답시고... 벌채된 나무들이 켜켜이 누워서 다음 생을 꿈꾸는 왕십리 목재상에서 전봇대보다 긴 향나무를 골랐다. 절단하던 체인 톱날에 살점을 날리며 향기를 토해내던 그 향나무의 처연함을...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 물기 머금은 붉은 꽃을 내보이던 그때 그 섬뜩함, 그리고 미안을 나는 오래 기억한다.”***

물질을 다루는 조각가만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말 못하는 나무이지만 엄연한 생명체였고, 어쩌면 자신보다 오랜 세월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견뎌왔을 것이다. 한 편의 우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른다. 근 50년간 조각가로 활동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처럼 처연한 기억이 자리잡고 있었다.

***“베니어판을 마주하고 나무를 상상한다. 거대한 숲에 나무를 살았을 그의 근본에 대하여... 생명의 기운 충전하던 그의 시간과 숨결의 흔적 애무하며 위로의 예를 다하여 그의 꿈을 되살린다.”***

박일순의 작업은 자신의 작업을 위해 희생된 제물들에 대한 천도제라 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손 건너 일어난 일에는 감성적으로 무딘 우리의 모습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의 작품에서 영화 <옥자>의 주인공인 미자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나의 일은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고 이해하는,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의 비밀, 그 신비한 질서에 다가가는 그런 것이라 여긴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헛되고 부질없는 짓인지는 세상과 시장의 기준으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수 십년 전 왕십리 목재소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박일순이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반세기 그의 여정을 통해 미술마저 고도로 산업화 한 시대에 예술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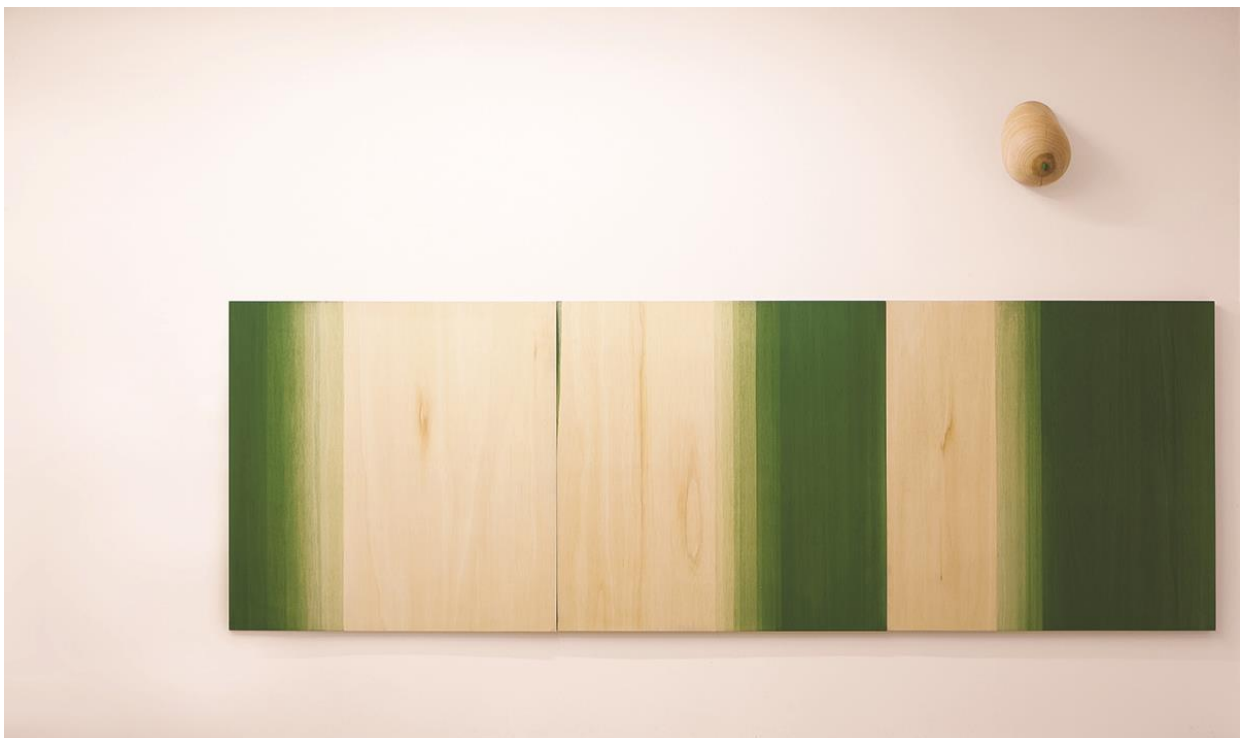
박일순의 작업을 통해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이 실로 어떤 존재인지 반성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의 작업은 '절제의 아름다움'을 모색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삶 또한 은일하다. 김중영미술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미술계가 그의 작업을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그가 더욱 일로 매진하여 한국미술계에 절제의 아름다움의 결정체를 선보여 주리라 기대해본다.

■ 전시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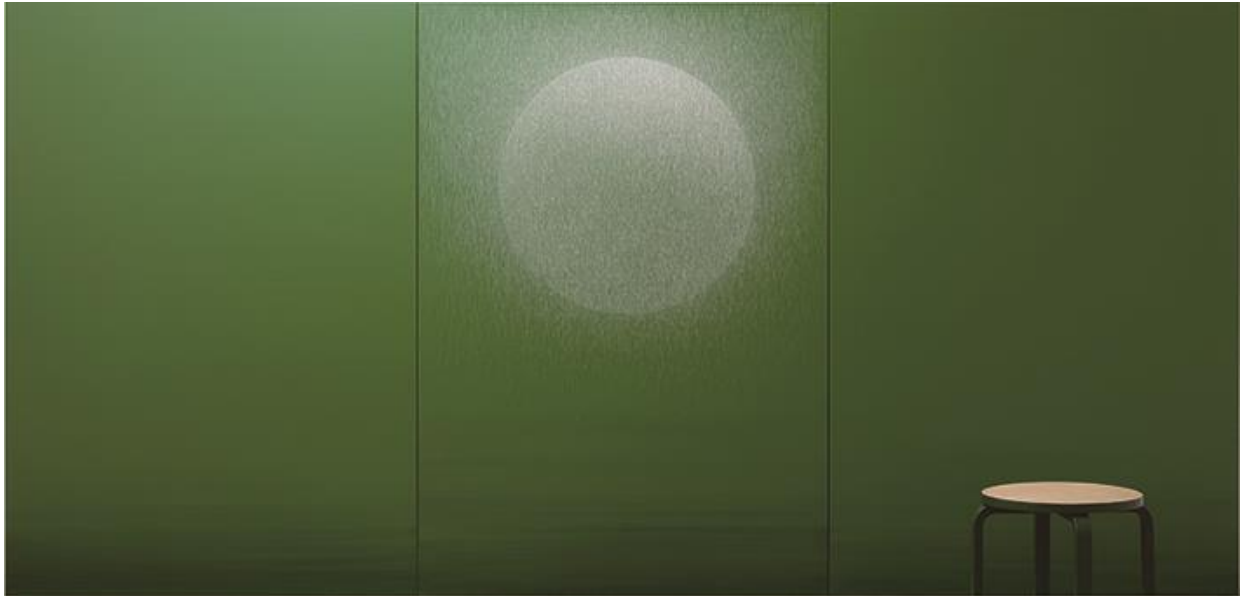




■ 작품 이미지



Green, 3600x1200mm, veneer, acrylic, 2019



Green, 3663x1221mm, 가변크기, acrylic, canvas, stoo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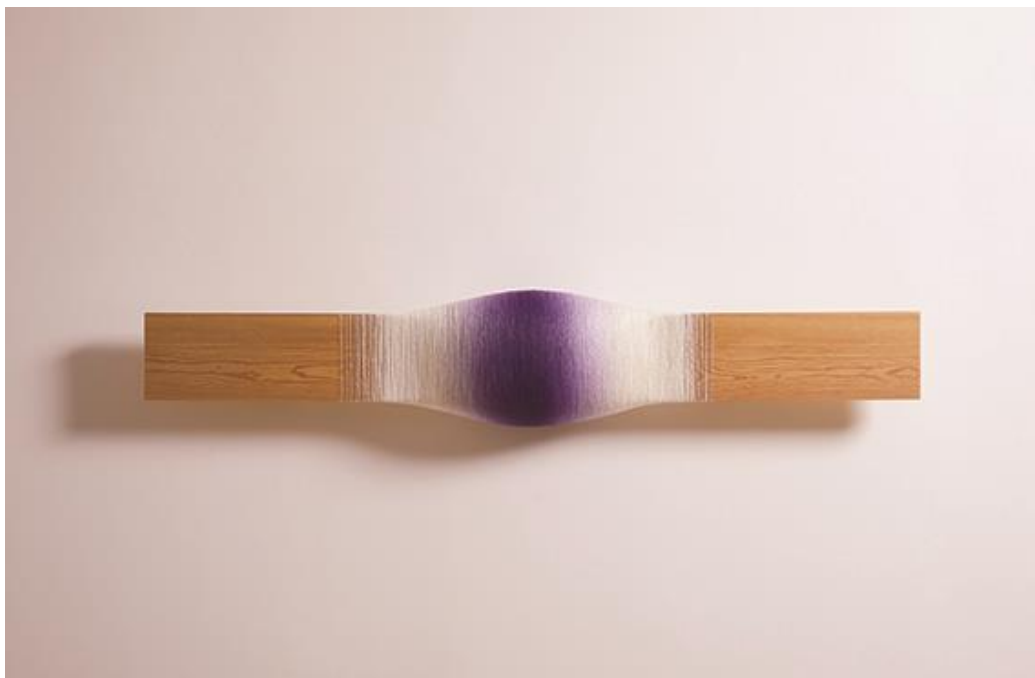


Green, 1830x1990x230mm, veneer, acrylic, wood, 2020





Green, 2340x2000x30mm, acrylic, canvas, wood, 2020



Violet, 1310x230x150mm, thread on wood, acrylic, 2018

## ■ 작가 박일순 (1951 년생)

박일순(이화여대 명예교수)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같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1986년부터 2016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일하였다.

지금까지 열다섯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되어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15회 김중영미술상을 수상하였다.

박일순 작업의 기초를 이루는 자연과 생명, 순환의 세계에 대한 그의 관조적 태도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과 내밀하게 교감하여 재료의 물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절제된 은유와 상징으로 자연의 본성을 환기시킨다

박일순의 작업은 조각과 회화의 경계를 허물며 회화적 조각, 조각적인 회화의 특성을 보이며 입체, 평면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번 박일순의 김중영미술상 수상 기념전은 미발표 최근작을 중심으로 김중영미술관에 신록의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